

1

권위와 외연의 확장-치과의사 안종서

신재의 치과의원(은퇴)

신재의

ABSTRACT

Prestige and Expanding Scope of Korean Dentistry- Dr. Jong-Suh Ahn

Shin Jae Eui Dental Clinic(Retired)

Shin Jae Eui, D.D.S.,M.S.D.,Ph.D

Dentists have been striving to find ways to relieve patients' pain and discomfort. The prestige of dentists is made up of dentists' self-sacrifice, academic research and pursuit of patients' wellbeing. However, nowadays the dentists' prestige has been lost and practice on humanity has merely existed. At this time, it is meaningful to shed new light on life of a pioneer in Korean dentistry and take some time for self-examination. Today, we are going to look into life of Dr. Jong-Suh Ahn and his achievements in Korean dentistry.

In 1925, Dr. Ahn Jong Suh graduated from KyungSung Dental school as a first graduating class. Then, he learned advanced dentistry at Severance Hospital and in April of 1932 as a young dentist with full of potentials, he opened his dental clinic in Tianjin, China.

As an awakening Korean, in 1925 he organized an association of Korean dentists, called HanSung Dental Association and worked as a secretary to manage general affairs. Han Sung Dental Association later became today's Korean Dental Association. On December 9th,1945, he founded ChoSun Dental Association. He accomplished great deals during his five consecutive terms as a chairman and held other important positions with prestige to lead and expand the scope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re were three other successors to Dr. Ahn as the presidents of Dental Association. Dr. Yong-Jin Kim had a great interest in internal affairs and dental materials. Dr. Myung-Jin Park was active in scientific affairs and Dr. Dong-Chan Han focused on smooth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From 1945 to 1963, Dr. Ahn submitted important agendas such as dentist's qualification, scientific and academic affairs, general affairs, dental materials, public oral health, and dental administration to Dental Association's general meeting and central committee.

Dr. Ahn overcame hardships of Japanese imperialism, celebrated independence of Korea, experienced 6.25 Korean War and lived through evolving Korean dentistry in 1960s. Dr. Jong-Suh Ahn, who showed the prestige of dentist and expanded the scope of dental association, is exemplary to all dentists.

Key words : 안종서, 치과의사, 치과의사회

이 한 전문의가 될 것”을 권장하였다⁷⁾. 또한 같은 해 1959년 《저경지》 8호 〈발간에 제하야〉라는 축사에서 “치과의사는 청년시절에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⁸⁾.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권 1호 〈속간사〉에서 치과의사는 “인간은 자아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본 협회지는 치과의사의 발전에 역할 대학에서의 연구만이 아니고 임상에서의 공부도 현실에 실제생활에 응용되고 적용되는 참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⁹⁾.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권 2호 〈권두사〉에서는 “세계 수준의 훌륭한 치과의가 되기를 희망하며 연구하는 의사가 되자”고 하였다¹⁰⁾.

그리고 안중서를 기리는 글로써는 이유경과 문홍조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안중서는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한 자랑스러웠던 분이였다.”고 추모되기도 하였다¹¹⁾.

안중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안중서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 치과의사 단체라는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앞날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때문에 저자는 안중서의 출생과 교육,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의 활동상황을 치과의사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이끌어 나간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파악하고 살펴보려 한다.

2. 출생과 교육

1897년 6월 24일 안중서(安鍾書)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본관 순흥(順興), 침추공파(僉樞公派) 25세손이었다. 약 200년 전부터 21대인 고조부부터 서울에 거주하였다. 본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2번지였고, 1939년 4월 안중서는 본적지인 안국동(현재 계동) 152에서 개업을 하였다¹²⁾. 1961년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99의 2호였다¹³⁾.

안중서는 8세에 서당에 입학하였다. 관립한성사범부속학교가 설립되자 제3학년에 전학 졸업하였고, 1915년 3월 휘문의숙을 졸업하였다. 1917년 중국에 가서 송실서원 제3학년을 수료하였다¹⁴⁾.

당시의 한국독립운동 망명정객들의 생계를 보고 형용할 수 없는 빈곤이었기에 안중서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선행이라 여기고 기술을 배우려고 귀국했다. 안중서가 한국독립운동 망명정객의 생활을 보고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했으며,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¹⁵⁾.

1919년 3.1운동 후 안중서는 총독부위원 치과에서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에게 기공 수업을 하였고,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입학하여,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¹⁶⁾.

7) 안중서,〈축사〉,《치과회보》창간호, 1959. 6쪽.

8) 안중서,〈발간에 제하야〉,《저경지》8호, 1959. 11쪽.

9) 안중서,〈속간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364쪽.

10) 안중서,〈권두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413-414쪽.

11) 이유경,〈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치과월보》, 1968.8.15 제19호. 2쪽.

문홍조,〈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12)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명부(1942년 12월 1일)

13) 안중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53-56쪽.

14) 안중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15) 안중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16) 안중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쪽.

약력

1915년 3월 휘문의숙 졸업
 1917년 11월 중국 북경 숭실서원 제3학년 수료
 1919년 3.1운동 후 총독부의원 치과에서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에게 기공 수업
 1922년 4월 ~ 1925년 3월 경성치과 의학교 입학 졸업
 1925년 4월 ~ 1931년 12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 교실 근무
 1926년 1월 ~ 1931년 12월 한국인 치과의사회인 한성 치과의사회 결성 총무
 1932년 1월 서울 파고다 공원 뒤에 2층 건물 신축하고 2~3개월 개업
 1932년 4월 중국 천진 불란서 조계에서 개업, 남개(南開)대학 치과축탁의
 1939년 4월 귀국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현재 계동) 152에서 개업
 1940년 2월 ~ 1945년 8월 휘문중학교 후원회 회장
 1945년 8월 ~ 1957년 4월 풍문여자중고등학교 후원회 회장
 1945년 12월 ~ 1946년 4월 대한치과의사회 위원장
 1946년 3월 ~ 1948년 4월 미국 군정청보건부 치과의사 자격심사위원장
 1946년 2월 ~ 1950년 6월 국립서울대학교 이사
 1949년 8월 ~ 1958년 7월 풍문학원 재단이사
 1950년 5월 ~ 1952년 3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52년 5월 ~ 1953년 7월 대한민국 보건부 보건위원
 1952년 3월 ~ 1954년 6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54년 3월 ~ 1955년 9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장

1955년 4월 ~ 1960년 3월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장
 1957년 대한민국 보건부 치과의사 국가시험위원(1년간)
 1958년 5월 ~ 1960년 10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61년 5월 국립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원회 이사
 1962년 10월 ~ 1963년 10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63년 8월 15일 이후 은퇴
 1968년 8월 16일 서거

상별

1954년 대한치과의사회 공로표창
 1955년 대통령 적십자특별 유공훈장
 1957년 보건부 치과계 공로표창
 1963년 8월 15일 대통령 공로표창

3. 일제강점기의 활동

(ㄱ) 안중서의 활동

1925년 4월부터 1931년 12월까지 안중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였다¹⁷⁾.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는 부츠(John. L. Boots)¹⁸⁾와 맥안리스(James. A. McAnlis)¹⁹⁾ 그리고 안중서가 진료하였는데 바로 그 시절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 전성기였다고 하였다.

당시의 치과학교실에는 치료의자가 5대였고, 발치료가 50전정도, 충의치가 80원정도, 지치 발치료가 10원이었다.

17) 안중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18) 부츠는 1894년 11월 9일 미국 펜실바니아 뉴브리튼에서 출생하였다. 1918년 피츠버그치과대학 3년 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임상강사로 재직하다가 1921년 3월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다. 부츠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갈 때마다 졸업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또한 그는 치과치료에 있어서 구강외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하였다.

19) 맥안리스는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철을 전공하였다.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은 보존분야에서 유명한 블랙(G. V. Black 1836-1915)이 재직했던 대학이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주로 보존과 보철 분야를 치료했다.

참고로 그 시절의 물가를 적어보면 대학출신의 월급초봉이 10원에서 15원이었고, 탕반이 15전, 요리집에서는 3~5원 이면 하루 저녁을 아주 잘 먹고 놀 수 있었다. 이에 비하면 엄청난 치료비였지만 얼마나 큰 인기를 치과가 받고 있었나 를 알 수 있었다. 내 월급은 150원 도지사의 그것과 같았다. 이제 생각하면 꿈만 같던 치과 의사들의 황금시절이었다. 한 국인 치과라 해서 쇠도하는 1일 80명의 환자를 취급했으니 현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요 번성이었다²⁰⁾.

안중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서 치조농루(齒槽膿漏)와 혈관종(血管腫)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안중서, 치조농루(齒槽膿漏) 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안중서, 치간에 발생한 혈관종(血管腫) 일례 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안중서는 일제강점기에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여 전 치금관을 없애는 선봉에 나서기도 하였다.

안선생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나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여 전치금관을 없애는 선봉에 나셨습니다. 그 당시 금관은 건강한 치아에 사치 풍속으로 금가락지 같은 행위로 하였 습니다²¹⁾.

일본인 치과의사는 한국이 식민지라해서 양심이나 도의를 망각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충치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무 엇이던 간에 마구 금관을 해 씌우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치과의료에 큰 인식을 가져온 것이라 보면 내 심경 은 이제 무엇이랴 하면 좋을지 의분을 금할 길이 없다²²⁾.

안중서는 세브란스에 있을 때에 임상경험에서 치료 비 관계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3대독자라는 소아가 다수의 가족과 함께 내원 했 다. 하악 유치 전치인데 경성제국대학의 명의들도 치료했으 나 치료가 되지 않고 발치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 서 나는 부자집 독자라 하니까 무통발치를 하기 위해서 입 원을 해야 된다고 했다. 특등실에 물론 안내 되었다. 다음날 수술실에 올라가서 환자를 불렀다. 가족들은 대단히 긴장하 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그 대로 흔들리는 유치를 순간적으로 뽑아 버렸다. 아이는 울 사이도 없었다. 가족들은 참 신기한 기술을 가졌다고 놀랐 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발치를 하느냐는 말이었다. 아이는 곧잘 뛰고 놀았다. 그러니까 가족은 그날 석양에 퇴원 하겠 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퇴원을 금하고 하룻밤 머물도록 했 다. 다음날 수술료로 30원을 청구하였다. 30원이라면 외과 대수술도 30원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이니 병원내는 내가 30원 청구 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좀 싸게 해 달라는 말도 있었으나 부자니까 그대로 30원을 받았다²³⁾.

안중서는 『키스』 할 때의 구취를 제거하여 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기억으로 하나 남는 것은 남녀청춘의 『키스』 이야기다. 어느 날이었다. 젊은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치과 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딸이 출가해서 며칠이 되지 않았는 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소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좋은 구취제거법의 치료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스케링(치석제거)을 잘 해 주었더니 그 후 얼마쯤 있다가 한 턱을 받았다. 그 한턱은 요즘 같은 한턱이 아니고 큰 광주리

20) 안중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21) 문홍조,〈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22) 안중서,〈내가 걸어온 치과계〉,〈한국치과공론〉, 1959. 26-27쪽.

23) 안중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학교 후원회 회장을 하였다.

(L) 그 주변의 치과의사들

1925년 4월 안중서(安鍾書)와 한국인 학생들은 온갖 수모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경성치과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1897년 6월 24일생인 안중서는 27세 때였다³⁰⁾. 한국인 졸업생은 28명 이었는데 그중에는 김용진(金溶璿)도 있었다. 1904년 11월 28일생인 김용진은 20세였다³¹⁾.

1925년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가 조직되었다. 회원은 처음 7~8명이었다. 회장은 함석태이고 총무는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한 안중서가 했다. 회원에는 김용진(金溶璿)이 있었고 모두가 회원 겸 부장(이사)이었다. 이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치과의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였으며, 오늘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되었다고 안중서는 증언하기도 하였다³²⁾.

안중서는 진료에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며,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의는 부츠(John. L. Boots)와 맥안리스(James. A. McAnlis)으로부터 미국의 진료제도를 익혔다. 그 당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식민지라해서 양심이나 도의를 망각하고 한국 사람에게 전치 금관을 해 씌우는 것을 없애는 선봉에 나서기도 하였다³³⁾.

안중서는 세브란스에 8, 9년 재직하였을 때 정보라, 이유경, 이동환 등이 경성치과의학교에 다니면서 4학

년 때 실습을 왔었다. 정보라는 그때 이미 대단히 열의 있게 착실한 태도로 실습을 했기에 안중서는 정보라가 장차 유능한 치과의사가 되리라고 말했다³⁴⁾.

1932년 4월 안중서는 중국 텐진(天津)에서 남개(南開)대학 치과축탁의로서 개업하였고, 1939년 4월 귀국 후 서울 종로에서 개업하였다³⁵⁾.

김용진은 1904년 11월 28일생이었고, 1925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안중서와는 같은 동기생으로 7년 5개월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졸업한 후 김용진은 총독부의원 치과의사로 1년 근무했다. 그리고 가정 사정으로 서울에서 30년간 개업을 하였다³⁶⁾.

1925년 김용진이 박명진을 알게 된 것은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하던 때이었다. 김용진이 경성치과의학교 3년 선배였으나 나이는 박명진이 한 살 위였다. 1925년 박창훈의 처남인 박명진이 경성치과의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당시 박명진은 관철동에 거주하였고, 김용진은 관수동에 살던 관계로 곧 친숙해져 때로는 술집을 때로는 다방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다닌 일도 있었다. 그 인연으로 김용진과 박명진은 학문과 미래를 거침없이 토론하게 되었다. 함석태를 비롯한 한국인 치과의사 10여인이 만든 크립 형태의 한성치과의사회는 안중서, 김용진, 박명진 등이 참석하였고, 한성치과의사회의 전신이 되기도 하였다³⁷⁾.

박명진(朴明鎭)은 1903년 7월 3일 서울시 양교동

30) 안중서,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사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31) 《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32) 안중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33) 문홍조, 「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 『치계』, 2권 7호, 1968. 35쪽.

34) 안중서,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사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35) 안중서, 「내가 걸어온 치과계」, 『한국치과공론』, 1959. 26-27쪽.

36) 《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37) 김경수, 「고 김용진 선생이 걸어온 치과계」, 《치과보건》 1권 2호, 1972. 2월호 58-59쪽.

서 심의한 안건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사항이 모두 합쳐진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안건

1. 치과의술 연구 건(학술)
2. 치과의사 검정시험에 관한 건(자격)
3. 치과재료 기계에 관한 건(재료)
4. 보건후생국에 치과부문을 설치하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치할 것(행정)
5.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자격)
6. 유급사무원을 회에 치할 것(회의)
7. 비 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자격)
8. 치과의사회관 설치에 관한 건(회의)
9. 기타(금 배급 문제)(재료)⁴³⁾

그것은 학술로서 (1) 치과의술 연구 건, 치과의사의 자격으로 (2) 치과의사 검정시험에 관한 건, (5)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 (7) 비 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

재료에 관한 것으로 (3) 치과재료 기계에 관한 건, (9) 기타 건(금 배급 문제)

치과 행정에 관한 (4) 보건후생국에 치과부문을 설치하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치할 것,

치과의사회에 관한 (6) 유급사무원을 회에 치할 것, (8) 치과의사회관 설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다.

1946년 3월 22일 조선치과의사회 안중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1946년 4월에 치과의사의 총

회를 개최하여 남조선 각도를 망라한 법정치과의사회로서의 새로운 발족에 대한 의견교환을 교환하였다. 이것은 1945년 12월 9일 총회가 주로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었다⁴⁴⁾.

1946년 4월 조선치과의사회 제1회 정기총회가 경성치과대학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장은 안중서에서 박명진으로 이어졌다⁴⁵⁾. 박명진 위원장은 경성치과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문제에 대해 소신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6년 2월~1950년 6월 안중서는 국립서울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6년 6월 국립서울대학교 편입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상호간 격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안중서는 경성치과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병합될 때에는 좌익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활동하였다⁴⁶⁾.

안중서를 비롯하여 박명진, 이유경, 정보라 등은 운영난 해결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대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 제도처럼 운영된다면 대학총장과 행정 책임자에 미국인이 임명되면 민족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 보다는 운영의 자치권이 있는 사립대학으로 남기를 희망하였다⁴⁷⁾.

일제강점기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는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관(官)에 의지하고 있었다⁴⁸⁾. 그러므로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대세는 국립서울대학교 편입을 지지하게 되었다⁴⁹⁾.

4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6) 문홍조, <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 (치계)2권 7호, 1968. 35쪽.
 4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63쪽.
 48) 柳樂達見, <경성치과대학 창설기>, (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2. 71쪽.
 4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63쪽.

1946년 9월 서울에 있던 한성치과의사회는 국립서울대학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안중서와 정보라 외 50여명은 한성치과의사회 임원들의 국립대학안 반대 처사가 부당하다 하여, 한성치과의사회를 집단 탈퇴하고 국립서울대학안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⁵⁰⁾.

1946년 9월 22일 안중서는 국립서울대학안을 지지하던 총 70여명의 치과의사들과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를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다⁵¹⁾. 회의는 국립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무장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하였다. 경성치과의사회 사무실은 명동 유시학치과의원에 두고 국립서울대학안 찬성 및 기타 회무를 맡게 되었다⁵²⁾.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되자 서울의 치과의사회가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와 2개의 단체로 분립하게 되었다. 서울의 치과의사회가 2개로 분리되니 여러 부문에서 지장이 생기게 되었다. 1946년 10월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는 서울시치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⁵³⁾.

1947년 5월 19~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과 대의원 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의원 점명 할 때 서울과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의 자격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임시의정장에 임택룡을 선출하여 설전 끝에 서울과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대의원으로 받아들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에는

임영준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학회장, 연구위원회대표위원은 각도 대표 1명씩, 중앙서 4명, 전위원장 1명이 전형위원이 되어 선출하였으나 전형위원에 문제가 되어 다시 전형위원을 선출하였다. 김창규(경남), 최해운(경북), 이희창(경기), 임택룡(전북), 김호연, 서병서, 이형주, 조용기(중앙), 김문조(전위원)가 전형위원이 되어 투표로 위원장에 김용진을 선출하였다⁵⁴⁾.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사항이었다.

안건

1. 의치일원화에 관한 건(자격)
2. 회 명칭개정에 관한 건(자격) - 구강과로 변경 안
3. 회칙수정에 관한 건(회의)
4. 예산안 토의의 건(회의)
5. 치과의료요금에 관한 건(재료)
6. 구강위생주간 행사의 건(구강보건)
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통일에 관한 건(회의)
8. 기타

한지치과의사 배치 및 자격(자격)

치의무국장 불신임안 가결(회의)

조선치과기재주식회사 미국제 치과기재 구입권(재료)

연락부 신설(회의)

9. 위원 개선(회의)⁵⁵⁾

1947년 8월 27일 조선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총회는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을 인정하

5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54쪽.

51) <이달의 얼굴>, 『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4호, 1976. 앞쪽 화보. 이 회장직은 한동찬이 월남하자 그에게 인계되었다.

52)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5쪽.

5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54쪽.

54) 협회사편찬위원회, <협회30년사 3>, 『대한치과의사협회지』13권 3호, 1975. 243-248쪽.

5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총회였다⁵⁶⁾.

안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의치일원화 건(자격)
2. 자재문제(재료)
3. 기타

1948년 5월 24일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상무위원 8명과 중앙위원과 대의원 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과보고 후 보건후생부의 공문 치과의료요금 배급에 관한 건과 치과의료용기자재 할당배급에 관한 건이 낭독되었다. 이것은 치과기자재에 관심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의장은 김용진 위원장이었다⁵⁷⁾.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51만여원, 년회비 600원-기관지 조선치계 운영비
2. 금 배급에 관한 건(재료)
3. 치과기자재 배급에 관한 건(재료)
4. 구강위생 강조주간에 관한 건(구강보건)
5. 한지치과의사배치 건(자격)
6. 조선치과연혁사 편집의 건(기타)

기타

- 가. 의료기관에 특별배전교섭 건(재료)(안병식 제안) 가결
- 나. 세계치과연맹에 가맹 건(학술)(정보라 제안) 가결
- 다. 조선의학협회 가맹 건(학술)(조호연 제안) 보류⁵⁸⁾

1949년 5월 29일 조선치과의사회 제4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집행부 11명과 중앙

위원 8명과 대의원 37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임택룡이었다.

안건

1. 1949년도 예산안 심의(회의)
2. 회칙 일부 수정의 건(회의)
3. 치과 의료제도 개혁 건(행정)
4. 기재배급에 관한 건(재료)
5. 기타 - 회명에서 조선을 대한으로(회의)⁵⁹⁾

1949년 10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대의원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건

1. 치료과명 개칭의 건(자격) -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할 것
2. 의료용 금 배급에 관한 건(재료)
3. 기타(회의) - 보건부 금 재고량 조사⁶⁰⁾

1949년 10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 이후 안중서는 과명개칭, 금 배급문제 추진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1949년 안중서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 개업하고 있었다. 그 때에 치과의사 개업계는 안중서, 이유경, 정보라 3인의 전성시대였다. 이 3인이 모두 세브란스 치과와 관련이 있는 분이었다. 안중서의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안중서 선생은 한때 중국에서 의료활동을 하신 적도 있다. 그 관계로 해방 후 중국에서 귀국한 독립운동 정치인 왕

5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341쪽.
 57) 협회사편찬위원회, (치협30년사 4), 《대한치과의사협회지》13권 5호, 1975. 407-411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5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5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60) 협회사편찬위원회, (치협30년사 12), 《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1호, 1976. 18-21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래가 많았다. 내원하시는 주 환자는 가회동, 계동을 중심으로 한 환자 외에도 국내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족이 많이 내원하셨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노장파가 다수였고 소장파도 간혹 내원하셨다. 지청천 장군, 김약수 의원들이 기억난다. 시인 중에는 노천명, 국악인은 박귀희 여사, 한독당 요원, 윤치호씨 계에서 오셨다.

특기 할 것은 이왕 직계 환자이다. 인력거로 오시고 반드시 시녀가 은주전자에다 물과 은컵, 에이프린까지 지참하였다. 규율이 대단히 엄하였던 기억이 난다. 제일 멋쟁이 환자는 초대 외무장관 임병직 장관으로 하늘색 증절모에다 하늘색 상하의에 자가운전까지 하며 내원하시는 모습은 신사중에 신사였다. 외무장관 특명을 받고 하와이에서 상하 총의치를 하고 온 것이 다소 불편하시다 하며 내원하셨다. 20대 이던 나에게는 그분이 선망의 대상이었다.⁶¹⁾

1949년 10월 안중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 모습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역할과 이승만 대통령의 치료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이곳 치과에 근무한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흐른 1949년 어느 날,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교환하는 전화내용인 즉, 이승만 대통령께서 내원하신다는 연락이었다. 전화 한통에 병원 내는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원장님을 제외한 5명의 직원은 퇴근시간도 연장된 상태에서 각자 분담된 구역의 대청소작전이 실시되었다. 다음 날 출근은 평소보다도 30분 이상 속히 출근 하였으나 이미 경무대 경호원 선발대는 도착해 있었다. 10시 10분 전 안국동 방면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선발 백색 질차와 기타 차에 포위된 대통령 전용차가 현관 앞에서 정지하였다. 사방으로 경호원의 경계 속에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현관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직원일동은 현관 내에서 두 분을 맞이하였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대통령께서는 “안 박사한테 신세 좀 져야겠어.” 하시며 실내사방을 살펴보신다. 간호원이 민첩하게 치료의자 쪽으로 안내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영부인에게 오늘의 일정을 문의하시는 듯하였다. 치료하는 동안 영부인께서는 열심히 일정표를 고하고 있었다. 메모지 한 장 없이 모두 암기하셨는지 차근차근 고하는 모습은 영부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치료가 완료 후 원장님께서 몇 번 내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과 시간과 시일을 약속하였다. 3일간 정도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왕진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다. 잠시 후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오늘은 왕진 가는 날, 약속시간 30분 전에 경무대에서 영부인차가 왔다. 우리 일행 3명이 승차한 영부인 전용차는 경무대 정문부터 경례의 세례를 받으면서 현관에 도착하니 경위복을 착용한 경호원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차문을 열어준다. 우리 일행은 2층으로 갔는데 비서 격인 사람이 “어디에서 치료를 하실까요?”하고 반문을 한다. 나는 그때에야 경무대 내에 의무실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내된 곳은 사방이 백색 타일로 장식된 병원 수술실을 연상하게 하는 실내에 의자 1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나오셨다. 의자에 앉으신 후 치료에 임하였다. 나의 역할은 의자에 앉으신 대통령 두부를 양손으로 잘 고정시키는 즉 안두대 역할이었다. 상상해 보라. 일개 국가의 대통령께서 이런 방법, 즉 현대와 원시가 혼합된 치료방법을 택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간호원이 돌리는 Foot Engine의 회전소리는 경쾌하기만 하였다. 2회 정도의 왕진치료 결과, 양측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 종전대로 내원치료로 결정하였다.

어느 날 대통령께서 먼저 치료를 끝마치고 영부인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원장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자네는 인턴인가?”라고 물으셨다. “네, 작년에 졸업하고 원장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였다. 나의 명찰을 보시고 “Dr. Kim이로구면” 하시더니 “내가 하와이에

61) 김희경,〈그때 그 시절〉,〈대한치과의사학회지〉17권 1호, 1998, 103쪽.

있을 때 친구가 치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발치를 하고 왔는데 확인 해보니 엉뚱한 치아를 발치하고 왔어. 그래서 말썽이 난 적이 있지. 안 박사한테 잘 지도를 받아. 엉터리의 사가 되지 말게.” 하셨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치료는 하순에 끝을 맺었다. 그 해 크리스마스 때 경무대에서 하사품이 전달되었다. 원장님에게는 금일봉, 나에게는 털장갑과 과자, 간호원에게는 과자 등이었다⁶²⁾.

1950년 5월 안중서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회 제5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다시 선임되었다. 안중서는 6.25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치과의사회를 지키게 되었다⁶³⁾.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53조 의거 대한치과의사회 설립총회가 부산 동광초등학교 분교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중앙위원 및 각 시도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안중서는 다시 회장에 선임되었다. 안중서는 6.25전쟁으로 피난지에서 법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회를 유지하고 이끌게 되었다⁶⁴⁾.

1952년 12월 6일 대한치과의사회 안중서 회장은 부산 광복동 김상찬 치과에서 정례역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면허, 면허세법, 초독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1. 부정면허에 관한 건 : 마산 이경용의 부정면허 취소 건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식 회시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취소조치가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에 책임 추궁을 보류하도록 가결하였다.

2. 면허세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건 : 11월22일 국회(민의회) 제27차 본 회의에서 가결된 면허세법 중 개정 법률안(면허세 면제) 통과에 관한 안중서 회장의 보고가 있었다.

3. 초독회 개최의 건 : 매월 제3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초독회를 대한치과의학회와 공동주최로 하여 개업의가 참가하여 임상연구 발표의 기회를 만들자는 안을 가결하였다⁶⁵⁾.

1953년 4월 대한치과의사회 총회를 앞두고 안중서 회장은 《한국의약시보》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과거 1년간 회의 책임자로서 운영을 해왔으나 산하단체의 협력을 얻지 못한 관계로 극난을 겪고 있다. 전시하 또는 피난 생활 중 불여의한 각 회원의 실정도 추측은 하는 바이나 현상 그대로는 존속키 곤란하며 또는 보건부에서도 회 강화에 관한 방안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당국에 누차 요청한 바도 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하간 금번 총회를 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전 역원의 퇴진을 결의하고 있으므로 진용을 쇄신하여 나가는 것도 좋을 줄로 믿는다⁶⁶⁾.

1953년 4월 17일 대한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가 부산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가교사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 역원 총사임의 건(회의) : 안중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역원 총사임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유는 피난살이의 고달픈 생활이라 회비징

62) 김희경, <그때 그 시절>, 《대한치과의사학회지》17권 1호, 1998. 103-104쪽.

6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6) 《한국의약시보》, 1953. 4.

수가 너무나 부진하여 도저히 회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무면허 개업취재에 관한 건(자격) : 군의 회원의 무자격자 고용 개업 또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미온적이었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회 각 도지부는 무자격자 개업의 확증을 수집하여 보고하면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로 가결하였다.
3. 의료용 「금」사용에 대한 부당 대우 시정의 건(재료) : 치과의사가 「금」을 사용한다고 하여 상공부와 법제처에서 금은세공업자와 같이 취급하는 부당성을 지적, 시정토록 가결하였다.

예산 : 정회원 매인당 회비월액 120원(학회비 50원 포함)

특별회원 매인당 회비 월액 45원(학회비 15원 포함)
총액 609,960원⁶⁷⁾

1954년 6월 19일 대한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가 서울 수복 후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최해운과 김용진이었고, 회장에 김용진이 투표로 선임되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720,000원(회비 월액 70원, 학회비 년액 600원)
결산 : 작년도 예산액 609,960원 중 징수액 135,290원
2. 치무행정 강화 건의 건(행정) - 치의무과 설치 건의
3. 회비징수강화 건(회의)
4. 치과보건원 양성 건의 건(자격)⁶⁸⁾

1955년 4월 23일 대한치과의사회 제4회 정기총회

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김용진이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회비 매인당 연액 2,160원, 학회비 1,440원
2. 소비조합 결성의 건(재료)
3.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건(학술)
4. 무자격자 개업 근절과 한지치과의사회 전입시정 건(자격)
5. 소위 합금판 건(재료)
6. 치과 의료용 특수전기 건(재료)
7. 기타

1956년 4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5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임시의장 최해운과 의장 김용진이 진행하였다.

안건

1. 고문 3명 추대의 건(회의)
2. 정관에 “소비조합” 항목 삽입 건(재료)
3. 치과보건원 양성소 설치 추진의 건(자격)
4. 전국초등학교에 치과촉탁의를 배치하고 위생실의 치과실을 완비하며 구강위생교재를 준비하도록 추진의 건(구강보건)
5. 본회 연혁사 편찬의 건(역사)
6. 각도 독립병원에 치과시설 복구 추진의 건(행정)
결산 : 총액 626,640원. 회비 미수로 차입금 255,340원

주요지출 : 총회비 46,860 역원회비 4,630 사무실 임대료 36,000, 인건비 120,000 회보발간비 135,500 학

6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8)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3〉,〈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2호, 1976. 119-120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회비 15,160 기타

예산 : 총액 4,964,080원(회비 연액 2,400원, 학회비 1,200원)(회의)

1957년 5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6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의장 임택용이 진행하였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회원 매인당 회비연액 3,600원(학회비 1,200원 포함)
2. 회관 설치건(회의) : 박명진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장 주택(대지140평, 건평80평 나가라다쓰미(柳樂達見) 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 사택)을 기증받아 이미 대한치과의사회 소유로 등록했다는 보고 하였다. 이것은 대한치과의협회 회관의 바탕이 되었다.
3. 회비징수 강화건(회의)
4. 기타

1957년 7월 13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도대표와 및 대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의장 김용진이 진행하였다.

안건

1. 면허(한지) 교부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 성명서, 결의문을 가결하였다.
2. 본회의 결의를 무시한 회원에 대한 대책 : 면허(한지) 교부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무시한 김기우 치무계장을 인책사퇴(권고사직) 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3. 부정면허취득자 철저 조사의 건⁶⁹⁾

1958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회 제7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임시의장 최해운이 진행하였고, 회장은 안중서가 선임되었다. 1957년 말 서거한 박명진 학장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안건

1. 회칙수정의 건(회의)
정관 제2조에 사단법인 삽입하기로 가결하였다. 구강위생 강조주건을 구강보건주건으로 개칭 건의 보고하였다⁷⁰⁾.
2. 범태평양치과연맹에 관한 건(학술)
3. 예산안 심의(회의)
연회비액 3,600원(학회비 1,200원 포함) 범태평양치과연맹회비 매인당 연액 200원(5년간) 특별회계 예산(범태평양치과연맹총회비 21,700,000원) 매인당 연액 7,000원
1958년 3월 24~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범태평양치과연맹)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4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4. 치의무행정기구 변경 추진 건(행정)
5. 소비조합 강화의 건(재료)
6. 입치영업자 면허교부의 건(자격)
7. 국민의료법 중 개정건의(자격)
8.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년 연장의 건(학술)
9. 개업수속예 납세필증 첨부 폐지 건(행정)
10. 기공사 자격부여의 건(자격)
11. 서울대학교치과대학장 결정 촉구건의 건(학술)

1958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안중서는 대한치과

69)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6〉,〈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6호, 1976. 500-502쪽.
70)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8〉,〈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8호, 1976. 638-641쪽.

의사회 회장이 된 후 이사회에서 입치영업자 면허갱신을 반대운동을 전개, 서울대학교치과대학에 예과를 설치하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년 연장문제, 한국인 치과질환 통계, 미국치과의사회(ADA) 회원 초청,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국산치과기재 전시, 대한치과의학회의 분과학회 구성(구강외과, 보철학, 소아치과학, 교정학, 구강해부 및 병리학, 보존학),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사위원 추천, 대한치과의사회 회관, 회칙 수정, 재일한인복송반대 전국대회 참가 등을 논의하였다⁷¹⁾.

1959년 안중서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보 발행 축하에서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논의하는 시기에 치과 의사는 예방의학과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와 같이 한 사람이 한 전문의가 될 것을 권장하였다.

우리 치의인들은 진리를 탐구하여 특히 치료의학을 지양하고 예방의학으로 발전하여 국민보건에 기여공헌이 대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치의학도 인류 건강증진과 명량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업의 일부분이라 하겠다. 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과거와 같이 일반과목 1인 부담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법에 명시됨과 같이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를 일인 일과 전문과목으로 전심전력하는 것을 이 기회에 권장한다⁷²⁾.

또한 같은 해 1959년 안중서는《저경지》8호 <발간에 제하야>라는 축하에서 청년시절에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용력할 것(힘을 쓸 것)은 청년시절부터 일찍이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오직 배워야 하고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뿐이며 학문이 있어야 선견이 생기고 선견이 있어야 비로서 범사역행(모든 일에 힘써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란 유수와 같아서 갈 때 예고가 없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니 제군들은 이 오고 가는 세월을 잘 이용하여 아무리 짧고 적은 광음(시간)이라도 학문의 소중한 연마와 수련에 뜻을 두고 참되게 전심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⁷³⁾.

1959년 4월 28일 안중서는 대한치과의사회 제8회 정기총회를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78명과 참관인으로 미국치과의사회(ADA) 회원 13명과 정보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회와 학회 합동으로 거행되어 국제치과연맹(FDI)대표와 미국치과의사회장의 메시지 낭독이 있었다⁷⁴⁾.

안건

1. 회칙일부 수정에 관한 건(회의) : 회명 대한치과의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을 가결하였다.
2. 예산안 심의(회의) : 연액 3,600원
3. 아시아 태평양 치과학회 개최준비(학술) : 기금 및 회비에 관한 건
4. 회관수리에 관한 건(회의)
5. 소비조합 강화의 건(재료)
6. 행정기구 강화의 건(행정)
7. 기타
국제치과연맹회의(이태리 개최상황)보고 : 정보라(학술)
WHO 치과보건회의(호주개최상황)보고 : 심태석(학술)

7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2쪽.
72) 안중서,〈축사〉,〈치과회보〉창간호, 1959. 6쪽.
73) 안중서,〈발간에 제하야〉,〈저경지〉8호, 1959. 11쪽.
7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2쪽.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교육연한 6년제 결정 건(학술)
전남의대 치의학부 신설 건 등을 보고(학술)
FDI 가입(100명에 17불)을 가결하였다.(학술)

1959년 5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생과강실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⁷⁵⁾.

안건

1. 회기(총회)를 10월에 개최하고 회계 연도를 10월-익년 9월로 하기로 하였다.(회의)
2. 회비 건(회의) : 봉급자 및 공무원의 회비는 반액으로 하였다.
3. 공의 및 교의배치문제(행정) :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4. 소비조합 가입 건(재료) : 1회 불입금 3만원(신가입 회원은 입회 시 가입하도록 하였다.)
5. 학회분과위원회 구성준비위원회 선정되었다.

구강외과 김용관, 서병규, 변종수
보철과 이영옥, 심태석, 이동섭
보존과 이유경, 김만수, 우종덕
교정과 김귀선
소아치과 차문호
기초학 김동순, 김영창(학술)

1959년 5월 7일, 5월 21일 안중서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이사회에서 부서 개편, 6·9행사 경비, 미국치과의사회 참석 등을 상의하였다⁷⁶⁾.

1959년 8월 7일 안중서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입치영업자 면허갱신교부 반대로써 면허증 반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이 입치영업자 면허갱신교부 반대결의에 의하여 수년간 보사부 당국에 건의문 또는 항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금반 돌연히 금명간 그 면허를 교부한다는 설이 유한즉 본인으로서 1천여 회원 제위에게 면목이 없으며 책임상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본인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반환함⁷⁷⁾.

1959년 8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긴급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중서는 입치업자를 재생시키려는 반시대적인 보사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였다. 1959년 8월 7일 안중서 회장은 35년간 간직했던 치과의사 면허증을 보사부에 반환함으로써 입치영업자 면허갱신에 대한 정면 대결에 앞장섰다⁷⁸⁾.

안건

1. 입치영업자 면허갱신 대책의 건(자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진정서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월 20일 20명의 대책위원들은 첫 회의를 갖고 진정서와 결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언론기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사정위원회, 자유당, 민주당 등에 전달했다.

대책위원회 임원부서

위원장 윤재욱, 부위원장 신인철. 총무부장 조기향, 간사 서영규, 정철구, 김종욱, 김규택, 이성민

그 결과 보사부는 1960년 1월 15일 입치영업자 면허하부원을 각하하였다.

1960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이사회는

7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2-283쪽.
7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2쪽.
7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84쪽.
7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3쪽.

지난 5월 4일 제출된 안중서 회장직 사표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토의한 끝에 수리하기로 하였다. 때는 4월 혁명을 계기로 한 국가적, 사회적인 정화기운이 진작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형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0월 정기총회까지는 회장서리로서 김용진 부회장을 집무하게 하기로 내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위원회에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인철 총무와 윤광수 조사의 사표도 수리되었다⁷⁹⁾.

1960년 10월 12-13일 대한치과의사회 제9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76명(강원, 제주결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은 한동찬이 선임되었다. 임시의장 윤재욱, 임택룡이었고 의장제도에 의한 초대의장 임영균, 부의장 김창규이었다⁸⁰⁾.

안건

1. 회칙개정안(회의)
회칙을 헌장이라고 한다.
의장제도를 둔다.
부회장 3명중 1명은 치과군의관으로 하고 지방 부회장제는 폐지한다.
학회 회장단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교육위원회에 학교치과의 글짜(자구)를 삼입한다.
2. 예산안 심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종신회비제도를 채택한다.(1인당 일만원)
치무과 중앙추진 찬조금을 징수할 것 등을 가결하였다.
3. 동남아세아 총회문제(회의)
4. 군의관 문제(자격)

5. 치의무과 육성에 관한 건(행정)
6. 치과 의료용 특수전기 배전제도 부활의 건(재료)

1960년 11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1. 치무과 대책위원회(행정) : 치무과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가결하였다.

1960년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회 긴급임시총회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대의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 보사부 치무과 존폐에 관한 건(행정)⁸¹⁾

1961년 5월 5일 제2회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5명 중 23명 출석으로 열렸다.

1. 치과의료법 초안 수정(제9장 제63조, 부칙 제6조)(자격)
2. 보사부 치무과 대책위원회 해산(행정)
3. 구강보건주간 행사계획서(구강보건)
4. 금년 가을 10월 17일~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범태평양치과연맹 총회 및 학회에 참석할 인원 구성과 차기 개최지로 예정된 한국의 대책 등에 관한 구제안을 작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⁸²⁾. (학술)

1961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10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중수, 부의장 이형주였다⁸³⁾.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총예산액 17,433,735원정

7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쪽.

8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쪽.

8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4쪽.

8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5쪽.

8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5쪽.

2.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의 건(학술) : 15,000,000원 예산
3. 학회 비 징수의 건(학술) : 예비비 예산에서 1,800,000원 지출
4. 기재소비조합에 관한 건(재료) : 존폐여부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
5. 갑종소득세율 인하의 건(회의) : 집행부에 일임
6. 부정 의료업자 단속의 건(자격) : 보사부에 건의 하여 강력히 단속
7. 종합병원, 시립병원, 보건소에 치과설치의 건(행정) : 3백 명 이상 기업체에도 치과의무실 설치 할 것을 추가하여 그 절충을 집행부 일임
8. 의료용 특수전기배전제도 부활의 건(재료) : 상 공부에 건의
9. 보험금 처결의 건(회의) :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것
10. 칫솔 규격결정의 건(재료) : 학회에 일임
11. 상해진단서에 관한 건(회의) : 상해 시의 치료기 일 한계를 학회에 일임

1961년 11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중앙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⁸⁴⁾.

1. 국제부를 강화할 것(회의)
2. 국제부 예산으로 90만원을 증액할 것(회의)
3. 한국 소개를 포함한 학회지 발간(연2회) 1백20만원(액수 재조정은 이사회 일임)을 책정 징수할 것(학술)
4.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제4회 총회 준비 위원회는 해체하고 서울 및 각도 치과의사협회에 통지할 것(학술)
5. 윤재욱 부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에 김 규택 선출(회의)

1962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1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대의원 106명(총수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종수, 부의장 서병서였고, 회장은 한동찬에서 안중서로 이어졌다⁸⁵⁾.

안건

1. 정관개정안 심의의 건(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대한치과의학회는 발전적 해산 되었으므로 학회지는 협회지로 발간하게 되었다.
2. 예산안 심의(회의) : 1,348,220원
종신회비는 폐지 주장이 제안되었으나 존속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3. 면허세에 관한 건(자격)
4. 민원서류제출 방법의 건(회의)
5. 대한치의보 확충의 건(회의)
6. 협회회관 수리의 건(회의)
7. 회원카드제 실시의 건(자격)
8. 구강검사표 통일의 건(행정)
9. 보험에 관한 건(회의)
10.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자격)
11. 의료법 중 면허취소 조항의 건(자격)
12. 개설면허 제도에 관한 건(자격)

1962년 10월 18일 이후 1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중서는 이사회에서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 사무, 의료업자 신고사무, 보사부 치의무국 부활설치, 신설학회 승인, 부산시치과의사협회 설립, 협회윤리위원회, 협회기 도안, 대한치의보 발행,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대우개선, 1967년도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 유치, 의료보조원법,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양성기관 초급대학 설치 추진, 협회 초청 학자의 강연회, 보사부 불소도포사업,

8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6쪽.
8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9쪽.

면허제, 의료법 중 면허취소 조항 및 개설 허가제 철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군의관 소집기준, 미국인 치과의사고문 추대, 치과대학 설립, 학술원상 후보자 추천, 6. 9행사, 치과의원 운영 실태조사, 한지치과의사 지역변경, 부정 의료업자, 치과재료, 원조 치과기재, 치과재료 규격과 국산치과재료 감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운영, 회관, 협회사 편찬, 친선경기, 무치의촌, 수재민 의연금 등을 논의 결정하였다⁸⁶⁾.

1963년 9월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에 관한 좌담회를 윤유선 국립보건원장과 안중서 회장 등 대한치과의사회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1. 안중서 회장 : 전문의 시험위원을 만들기 위한 제자가 출제한다는 방안을 지양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전문 과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시험위원이 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자.
2. 윤유선 원장 : 시험위원은 지엽문제이다. 요는 일단 시험을 보기로 정하였다면 협회가 주동이 되어 시험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 협회가 보낸 구체안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협회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 시험은 국가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증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 과목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의료법 시행 규칙에 그것을 추가할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⁸⁷⁾.

1963년 대한치과의사회장 안중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속간사〉에서 인간은 자아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치과의사는 직분을 완수하는데 지속적인 학문 연구해야 하며, 그 연구는 실제생활에 응용되는 참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공부하고 연구하며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아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우리가 우리들의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데 획책이 되는 쉬지 않는 계속적인 연구와 학문의 태도는 모름지기 우리들 뼈 속 깊이깊이 마디에 배어야 한다. 차제에 속간제 되는 본 학술지는 앞으로 우리 치의인들의 연구와 공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며 우리 치의인들의 발전과 진보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일의 치과계를 위하여 위대하고 찬연한 기여를 할 것이다.

환연컨대 상아탑 속에서의 연구만이 학문이 아니고 임상에서 진료실에서의 공부도 참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 학문이 학문으로서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학문이요 현실에 실제 생활에 응용되고 적용된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참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⁸⁸⁾.

이어서 1963년 대한치과의사회장 안중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권두사〉에서 한국 치과계가 연구의 연구를 축적하여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의사, 연구하는 의사가 되자고 하였다.

우리 치의인들은 우리들대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훌륭한 치과의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연컨대 각자가 실력과 연구의 연구를 축적하여 한국 치과계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치과계로 하여금 각광을 받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결 같이 훌륭한 치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치과의란 어떤 치과의일까? 이는 아마도 공부하는 의사, 연구하는 의사, 배워서 알고자 하는 의사를 두고 말할 것이다.

8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1980. 289-292쪽.

8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1980. 291쪽.

88) 안중서, 〈속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364쪽.

	자격	학술	재료	보건	회의	행정	기타	계	비고
1945.12.9	3	1	2		2	1		9	
1946.4.					1			1	자료 없음
1947.5.19~20	3		2	1	5	1		12	
1947.8.27	1		1				1	3	임시
1948.5.24	1	2	3	1	1		1	9	기타-역사
1949.5.29			1		3	1		5	조선-대한
1949.10.21	1		2					3	임시
1950.5					1			1	자료 없음
1952.3.16					1			1	자료 없음
1953.4.17	1		1		2			4	
1954.6.19	1				2	1		4	
1955.4.23	1	1	3		1		1	7	
1956.4.21	1		1	1	2	1	1	7	기타-역사
1957.5.11					3		1	4	
1957.7.13	3							3	임시
1958.5.10	3	3	1		2	2		11	
1959.4.28.		6	1		3	1		11	
1959.5.1	1		1		2	1		5	중앙위원회
1959.8.16	1							1	임시
1960.10.12-13	1		1		3	1		6	
1960.11.18						1		1	중앙위원회
1960. 12. 4						1		1	임시
1961. 5. 5	1	1		1		1		4	중앙위원회
1961.10.11	1	2	3		4	1		11	
1961.11.18		2			3			5	중앙위원회
1962.10.11	5				6	1		12	
1963.10.4	1				6	6		13	
합계	30	18	23	4	53	21	5	154	

우리는 우리들이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고 또 다른 동지들이 연구한 것을 습득하여 서로 협조하고 부축하여 다 같이 훌륭한 치과의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⁸⁹⁾.

1963년 10월 4일 대한치과의사회 제12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대의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중수였고, 회장은 김용진이 다시 선출되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1,135,273원(운영회비 연액 300원, 특별회원 150원)
운영회비를 신설하였다. 이는 1960년도 정기총회에서 수립된 중신회비로는 협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치무행정기구 강화의 건(행정)
3. 회관 명도문제의 건(회의)

89) 안중서, <권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413-414쪽.

기충회 및 학술대회에 국산치과기재 전시, 미국치과 의사회(ADA) 회원 초청 등을 회무 처리하였다⁹⁷⁾.

1960년 5월 10일 대한치과 의사회 임시이사회는 5월 4일 제출된 안중서 회장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때는 4월 혁명을 계기로 한 국가적, 사회적 변화가 진작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형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0월 정기총회까지 김용진 부회장이 회장서리가 되었다⁹⁸⁾.

1960년 10월 12일 한동찬이 대한치과 의사회 회장이 되어 치무과 부활 등 어려운 회무는 임시총회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였다⁹⁹⁾. 1962년 10월 11일 안중서는 제11회 대한치과 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재기하여 회장이 되었다. 안중서는 회장으로서 전문과목 표방, 1967년도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 보사부 치무과 설치 노력, 대한치과 의사회 회관, 신설학회 승인, 협회사 편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양성 초급대학 설치, 치과재료 규격과 국산치과재료 감정, 협회윤리위원회, 협회기도안, 대한치의보 발행, 보건소 근무 치과 의사, 보사부 불소도포사업, 면허세와 의료법 개정, 치과대학 설립, 치과의원 운영 실태조사 등을 회무 처리하였다¹⁰⁰⁾.

1963년 10월 4일 김용진이 다시 대한치과 의사회 회장이 되었고, 1964년 10월 5일 이유경이 대한치과 의사회 회장이 되었다¹⁰¹⁾.

5. 맺음말

치과 의사는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아왔다. 자기희생과 학문에 대한 진리 탐구, 환자에

대한 웰빙(wellbeing)을 추구할 때 치과 의사의 권위는 살아 있었다. 언제부터 인가? 치과 의사의 권위는 낮아지고, 인류애는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때 치과계를 이끌어 나간 분의 삶을 조명해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치과계를 이끌어 나간 안중서의 일생을 출생과 교육을 살펴보고, 그의 주변의 치과 의사와 치과 의사의 활동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1925년 안중서는 경성치과 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여,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선진 치의학학을 배웠고, 1932년 4월 젊은이로서 포회(抱懷)는 크고 높게 중국 텐진(天津)에서 개업하였다.

1925년 그는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하여 한국인만의 한성치과 의사회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어 회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한성치과 의사회는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대한치과 의사 협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현행 협회창립일은 안중서가 주장한 1925년 한성치과 의사회 창립해 대신 일제 강점하의 총독부를 돕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1921년 창립 조선치과 의사회를 창립 원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안중서 뜻대로 1925년의 한성치과 의사회 창립 해로 협회창립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광복 후 1945년 12월 9일 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이라는 생각으로 설립한 조선치과 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의 위원장으로, 1950년 5월

97)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한치과 의사 협회사』1980. 281-282쪽.

98)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한치과 의사 협회사』1980. 283쪽.

99)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한치과 의사 협회사』1980. 283-288쪽.

100)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한치과 의사 협회사』1980. 289-292쪽.

101)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한치과 의사 협회사』1980. 227쪽.

참 고 문 헌

- _____,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운출판사, 2005.
- _____, 『한국치의학사 연구』, 참운출판사, 2005.
- _____, 『한국치과기자재의 역사』, 참운출판사, 2012.
- 안중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최신의학》, 1959년 2월.
- 안중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 안중서, <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 안중서, <치조농루(齒槽膿漏)>, 《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 안중서, <치간에 발생한 혈관종 일례>, 《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 안중서, <축사>, 《치과회보》창간호, 1959.
- 안중서, <발간에 제하야>, 《저경지》8호, 1959.
- 안중서, <속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 안중서, <권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치계》, Vol. 2, No. 9-12, 1968.
- 이병태,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 이유경, <고 안중서 선생 영전에>, 《치과월보》, 1968.8.15 제19호.
-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_____,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 _____, 『서양 치과 의학사』, 군자출판사, 1995.
- 정용국, <치과의사의 진사명과 그 범위>, 《조선치계》창간호, 1946.
- 周大成, 『中國口腔醫學史考』, 人民衛生出版社, 1991.
- 최진환, <한국치의학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 최효봉, <치계야화 12>, 《치계》 2권 7호, 1968.